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111-145  
<https://doi.org/10.29212/mh.2018..107.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제주도 주둔 해병대사령부 위치에 대한 연구

박종상\*

1. 문제제기
2. 해병대의 창설과 경남 진주 파견
3.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이전 육군의 제주도 부대배치 현황
4.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5. 제주도 해병대사령부 주둔 위치에 대한 검토
6. 결론

### 1. 문제제기

역사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면서 그 흔적은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군 이후에 많은 부대들이 창설되었다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증편되고, 다시 편제의 조정으로 인해 없어졌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부대들이 창설되기도 하였으며, 기존의 부대들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6·25전쟁과 전쟁 이후 산업발전에 따른 지리적인 변화 등의 이유로 건군 초기의 부대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미 많은 곳이 부대 창설 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주둔했던 곳의 흔적도 다르지 않다.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하였던 곳의 위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남 진해에서 창설되어 제주도, 부산, 서울을 거쳐 현재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해병대가 창설되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병대 처음 세운 곳”이라는 탑이 있다. 즉, “해병대 발상탑”이다. 이곳이 해병대가 창설되어 최초로 주둔하였던 곳이다. 창설 이후 두 번째로 주둔했던 곳이 제주도이다. 비록 첫 번째 작전이 경남 진주이기는 하나 해병대사령부는 진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하여 부대가 주둔하였기 때문에 제주도가 두 번째 주둔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의 조일약국 앞에는 제주도에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한 것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 표지석은 제주도에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2010년 9월 1일 제10회 제주 해병대의 날에 설치되었다.<sup>1)</sup> ‘제주 해병대의 날’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제주도에서 모집된 해병대 3·4기생들이 제주도를 출발한 1950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날 설치된 ‘해병대사령부 주둔했던 터’ 표지석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되어 동년 12월 28일 제주도로 이동, 이곳에 사령부를 설치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1) 해병대 공식 블로그, <http://rokmarineboy.tistory.com/201>, <검색일 : 2018. 3. 13.>



<그림-1> 조일약국 앞 제주도 해병대사령부 주둔 표지석

해병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했던 덕산비행장에서 1949년 4월 15일에 창설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후 해병대는 8월 29일부터 경남 진주에서 4개월여 간의 작전을 수행하고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진주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당시 해병대사령부는 진해에 위치하고 참모장이었던 김성은 중령이 부대를 지휘하는 약 550여 명의 ‘김성은부대’가 편성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해병대는 진해의 해병대사령부와 진주의 김성은부대가 1949년 12월 28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에서 해병 제3·4기생을 모집하여 1950년 9월 1일 제주도를 떠나 전쟁에 참가하였다. ‘제주 해병대의 날’은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해병대가 제주도에 주둔하였을 당시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제주읍부대가 제주읍에, 모슬포에는 주력부대인 모슬포부대가 있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와 제주읍부대가 제주읍에 위치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단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추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리적인 변동이 있었겠지만 제주도를 방문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던 중 6·25전쟁 당시 제주도의 대정고등학교 운동장이 위커운동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정고등학교를 방문하였으나 현재의 대정고등학교에는 위커운동장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428번지에 위치한 대정고등학교는 1979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위커운동장은 대정고등학교에 없다는 것이다.<sup>2)</sup> 또한 제주도 방문 시에도 1945년 이후 주둔하였던 군 부대의 흔적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흔적을 찾는 것이 제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지리적인 변동이 있었다면, 비록 기록을 찾기가 제한될 지라도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하였던 곳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 연구는 해병대가 창설된 이후 진주에서의 작전을 수행하고 제주도로 이동하여 위치하였던 해병대사령부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하였던 위치를 밝히기 위해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부대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육군부대가 해병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해 주었던 위치와 주둔했던 위치를 찾아내어 해병대사령부의 주둔위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제주도 현지 방문을 통한 관련위치의 확인 및 관련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濟州道誌』, 제주 4·3사건 관련자료, 해병대사령부 발간자료, 제주고등학교 관련자료, 회고록 등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2)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대정고 50년사』 (상), (제주: 대정고등학교 총동창회, 2004), 520쪽.

## 2. 해병대의 창설과 경남 진주 파견

### 가. 경남 진해에서의 해병대 창설

대한민국 해병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덕산비행장에서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되었다. 해병대가 창설된 데에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 10·19사건’)의 교훈에 따라 그 필요성이 고조되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여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당시 전남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의 남로당계 장병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1948년 5월 4일에 신편되어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에는 남로당 군사부의 지령을 따르는 다수의 좌익분자들이 침투하여 있었다.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제주 4·3사건이 정부수립 이후에도 완전히 진압되지 않자 정부는 계속해서 경찰과 군병력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가 1948년 10월 제주도로 출동명령을 받게 되었다. 당시 연대장은 10월 7일 보임된 박승훈 중령이었다. 육군 제14연대가 제주도에 증원부대로 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남로당은 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임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에게 출동 직전에 반란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보냈다. 이에 지창수 상사는 연대 내 좌익분자 40여명을 동원하고 좌익분자인 연대 대전차포 중대장 김지희 중위와 홍순석 중위 등으로 하여금 부대가 제주도로 출동하기 직전인 10월 19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해군은 제주 4·3사건 때처럼 여순 10·19사건 진압에서도 육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해군은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이후 함정 3~4척을 제주도 근해에 배치하여 육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JMS 302정은 제주도 남방해역을 경비하던 중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일본어선 2척을 나포하여 여수 세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10월 19일에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그러나 반란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여수항에서 함정을 출항시킨 후 10월 20일 새벽 3시 경 해군본부에 관련사실을 보고하였다. 해군본부로부터 여수에 주둔한 육군의 폭동사실을 보고받은 국방부는 정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진압작전에 육군과 해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원된 병력은 육군 5개 연대 예하 10개 대대와 1개 비행대, 그리고 해군 1개 정대의 함정들이었다.<sup>3)</sup> 해군의 임무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육군을 지원하고 반란군의 해상탈출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10월 25일 육군의 진압군이 순천, 벌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였을 때 해군의 JMS 302정은 부산에서 육군 제5연대 제1대대 병력을 탑승시켜 10월 26일에 부산항을 떠나 여수 오동도 인근의 남항부두에 상륙을 하려했지만 육상의 진압군에게 쫓겨 해상탈출을 시도하는 반란군들이 부두에 몰려있었다. 결국 육군의 진압군은 10월 27일 여수를 탈환하고 잔당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sup>4)</sup>

이 진압작전은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은 바다에서 육지로 진입하는 상륙작전부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이때부터 해병대 창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해군 임시정대 지휘관이었던 이상규 소령이 함정을 지휘하여 여수 앞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느낀 것은, 해군은 함정에서 함포지원만 할 뿐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여 전투하는 상륙군이 없으므로 해군에도 상륙작전부대를 가져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귀대 후 작전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군총참모장인 손원일 제독에게 보고하였다.

3)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2012), 30쪽.

4) 위의 책, 31~32쪽.

- ① 아 함정은 방어무기의 불충분으로 접근교전에 불리를 면치 못하였음.
- ② 공격무기가 빈약하여 적을 철저히 제압할 수 없었음.
- ③ 통신연락에 있어서 총사령부, 기지, 함정의 파장이 동일함으로 통신에 지장이 있었음.
- ④ 해군은 해상전투가 주목적이나 육전대의 필요를 절감하였음.<sup>5)</sup>

이 작전에 대한 보고는 해군작전 전반에 걸친 언급이었으나 이 가운데서도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함정의 장비강화와 해병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이상규 소령만 느낀 것이 아니고 이 소령과 교체하여 소탕전 지휘관으로 출동한 신현준 중령도 동감해서 해군총참모장인 손원일 제독에게 건의를 하였다. 이렇게 해병대 창설의 문제가 대두되어 논의되자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준장은 해군통제부 참모장 신현준 중령에게 해병대 창설 문제를 연구하여 건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현준 중령은 진해의 해군통제부 법무관 강대성 대위와 그곳 민용식 소위를 선임하여 발령하고 3명이 서울의 해군본부에서 해병대 창설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sup>6)</sup>

이후 해병대 창설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해병대 창설준비 요원으로 활약하던 해군통제부 참모장 신현준 중령을 1949년 2월 1일부로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해병대 창설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창관(安昌寬) 소위, 김낙천(金洛泉) 소위 외 30명으로 편성된 작업선발대를 1949년 2월 21일 장차 해병대의 기지가 될 진해 덕산비행장에 파견하였다. 안창관 소위를 비롯한 파견대원들은 연병장을 정비하고 병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서진 격납고를 수리하기 시작하여, 3월 28일 해군에서 전입된 장교 및 부사관 80명, 신병 300명 등 총 380명으로 병사수리, 연병장 건설작업은 점차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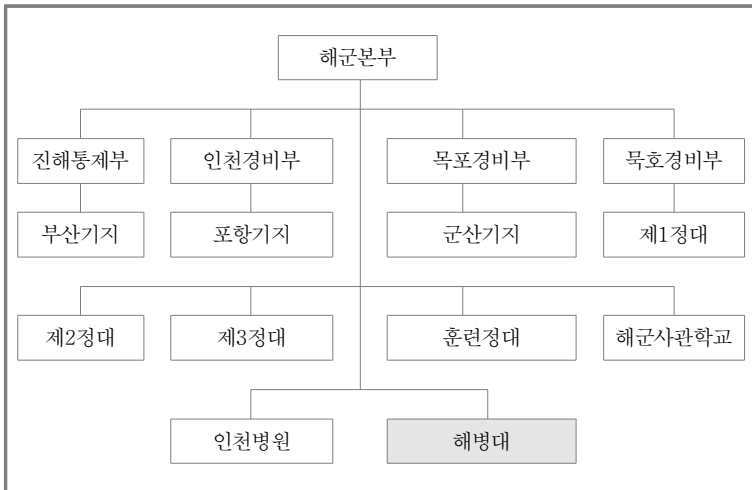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해방과 건군』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637쪽.

6) 위의 책, 637~638쪽.

결국 해병대 창설의 문제가 제기된 1948년 11월 이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제한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극복하여 여러번의 목적과 임무가 변경되는 가운데 해군기지 경비의 명목으로 1개 대대병력의 해병대를 창설할 것을 승인받아 만 5개월만에 해병대 창설은 실현되었다.

창설 당시 사령부(15명), 경리대(15명), 근무중대(70명), 정보대(10명), 소총 2개 중대(270명), 총병력 380명으로 편성되었던 해병대는 해군신병 제13기 중에서 300명을 인수하여 해병 제1기생(1949. 4. 15.~7. 30.)으로 훈련시켰고, 다시 해군신병 제14기 중에서 440명을 특모하여 제2기생(1949. 8. 1.~10. 20.)으로서 훈련시켰다.<sup>8)</sup> 장비는 주로 99식 소총이었고 M1소총은 1정밖에 없어서 각 중대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교육을 받았다.

<표-1> 해병대 창설 당시 해군의 편성(1949. 6. 1.)<sup>9)</sup>



7)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제1집(증보판)』 (서울: 해병대사령부, 1962), 12~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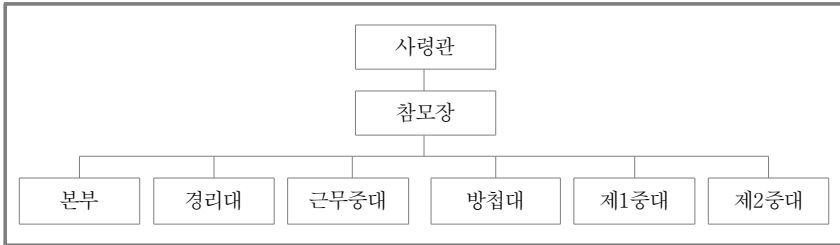
8) 위의 책, 14쪽.

9)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 (충남 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129쪽.



해병대의 창설 당시 편성과 훈련은 육군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미 해병대와 같은 부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전대(陸戰隊)라고 하지 않고 해병대라고 불렀다.<sup>10)</sup>

<표-2> 창설 당시 해병대 편성표(1949. 4. 15)<sup>11)</sup>



해병대 창설의 법적 근거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해병대령)의 공포였다. 해병대령의 공포로 1949년 4월 15일에 이미 창설된 해병대를 국군의 한 조직으로 추인하였다. 해병대령은 총 6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령의 조항에는 해병대의 임무와 소속, 편성과 배치에 관한 지휘권 문제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 법령의 제1조에 의하면, 해병대는 해군에 설치되어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전투에 임할 뿐 아니라 주둔지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병대의 수장은 해병대사령관이었으나, 해병대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권한은 해군총참모장에게 있었다.<sup>12)</sup>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로 공포된 해병대령은 다음과 같다.

10)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해병대 20년사)』 (해병대사령부, 1961년), 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18쪽.

11) 해병대사령부, 『해병대편제사( I 권)』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2011), 1-58-33쪽.

12) 『해병발전사(해병대 20년사)』 (해병대사령부, 1961년), 8-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91~392쪽.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sup>13)</sup>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 소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통솔한다.

제4조.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통제부 경비부 소재지에 있는 해병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한 당해 사령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제6조.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인가를 얻어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병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해병대령은 1952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672호에 의거 전문 16조로 개정되었다. 이때 특기할 것은 제2조의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에 의하여 일반지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로서 이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위주로 하는 부대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 나. 해병대의 경남 진주 파견

해병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했던 덕산비행장에서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된 이후 1949년 7월 말까지 해병 제1기생이 기초훈련을 마치고 경상남도 진주에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주

13) 『해병전투사 제1집(증보판)』 (1962), 10~11쪽;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 (2012), 38쪽.

에서는 여순 10·19사건 시 도주한 잔당세력이 지리산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었다.

육군은 이들의 진압이 완료된 1948년 10월 30일부터 기존의 진압부대를 호남 방면 전투사령부(사령관 원용덕 대령)로 개편하여 지리산 등지에서 소탕작전을 하였으나, 11월 30일에 해체한 후 1949년 3월 1일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정일권 준장) 및 호남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원용덕 준장)를 설치하여 다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광주에 사령부를 둔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예하에 제20연대, 제15연대 1개 대대, 제3연대 1개 대대를 배속하였다. 남원에 사령부를 둔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는 예하에 제3연대 1개 대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9연대 1개 대대, 제19연대 1개 대대, 독립유격대대를 배속하였다.<sup>14)</sup> 하지만 5월 9일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남로당은 이 지역의 게릴라 잔당들에게 주변 지역에 대한 습격,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함으로써 공포와 민심교란을 획책하려 하였다.

진주는 지리적으로 마산, 진해, 부산과 연결되는 중요도시이므로 육군에서는 이곳에 부대를 주둔시켜 공비들의 준동을 저지하여 왔다. 따라서 진주에서 멀지 않은 마산에 육군 제16연대가 1948년 11월 20일 이후 계속 주둔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상남도 서북부 일대의 공산 게릴라들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는 마산의 육군 제16연대 예하 1개 대대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군 부대만으로는 공비에 대한 진압이 어려워지자 1949년 8월 26일에 대구에서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과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간의 협의에 따라 해병대가 진주에 주둔하여 공비를 소탕하게 되었다.<sup>15)</sup>

14) 『6·25전쟁사 1-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 469쪽.

15) 1949년 8월 26일 당시의 육군총참모장은 채병덕 소장이다. 채병덕 소장은 1949년 5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대 육군총참모장으로 보직되었으며, 10월 1일에 해임되어 총참모장 대리인 신태영 소장이 취임하였다. 다시 1950년 4월 10일에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참모장인 김성은 중령을 부대장으로 하여 550여 명으로 편성된 1개 대대 규모의 부대를 진주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일에 해군에서 장교와 하사관을 증원받고 해군 신병 제14기 중에서 해병 제2기생으로 440명을 특모하여 3개 소총중대로 증편하였던 해병대는 해병 제1기생으로 구성된 제1중대와 제5중대를 기간으로 김성은 부대를 편성하여 진주에 파견하였다. 김성은부대는 8월 29일 진주사범학교(現 진주교육대학교) 기숙사를 부대본부로 정하여 주둔하였다. 안창관 중위가 지휘하는 선발대를 비롯하여 각 중대는 경남 진주에 도착하여 진주를 중심으로 진주군, 창녕군, 함안군 일대를 경비담당지구로 하여 공비소탕에 임하였다.<sup>16)</sup>

이후 1949년 11월 17일에 해군 신병 제14기 수료자 중 200명이 해병대에 전입함에 따라 제7중대를 신편하여 병력이 1,200여 명으로 증원되었다.<sup>17)</sup> 당시 진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김성은부대의 작전지휘권은 광주에 위치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인 김백일 대령이 가지고 있었다.<sup>18)</sup>

해병대의 일부병력이 진주에 주둔하면서 수행해야 할 임무는 지리산을 근거지로 부근 일대에 출몰하는 공비의 토벌만이 아니었다. 초창기인

---

제4대 총참모장에 보직되었다. 정일권 장군은 1950년 6월 30일부터 1951년 6월 22일까지 육군총참모장에 보직되었다. 따라서 『해병발전사(해병대 20년사)』(해병대사령부, 1961년)의 10쪽에 기록된 “단기 4282년 8월 26일에 대구에서 국방부참모총장 채병덕 소장,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준장과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간에 맺은 협의에 의하여~”와 『해병전투사(제1집)』(해병대사령부, 1962)의 11쪽에 기록된 “단기 4282년 8월 26일에 대구에서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준장과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간에 맺은 군사협약에 의하여~”는 잘못된 기록다. 1949년 8월 26일 당시에는 육군본부 작전국장이었다.

채병덕 소장의 육군총참모장 재임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책자를 참고할 것.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6) 『해병전투사(제1집)』(1962),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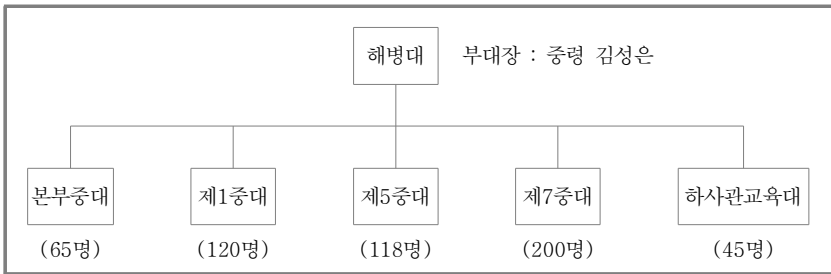
17) 해군본부, 『해병사』 제7집(서울: 해군본부, 1975), 30쪽.

18)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전 국방부장관 김성은 회고록)』(서울: (주)아이템플코리아, 2008), 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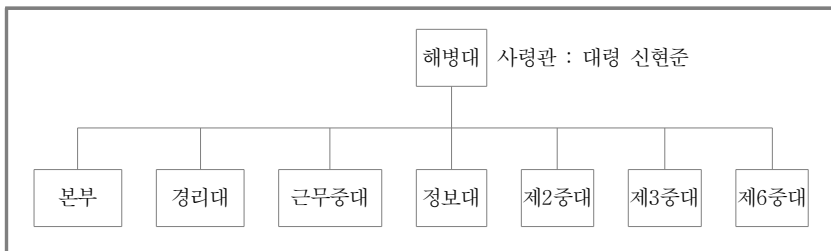
이때 해병대 자체의 정신훈련과 아울러 전투훈련을 쌓아 강병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였고 민심을 수습하는 선무공작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sup>19)</sup>

진주 주둔시 부대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3> 진주 주둔 김성은부대의 편성표(1949년 8월 29일~12월 16일)<sup>20)</sup>



<표-4> 진주 파견 후 진해 본대 편성표<sup>21)</sup>



한편 해병대는 마산과 진주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부대의 미 고문관인 하우스텐 대위가 해병대의 고문관도 겸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의 조언에 의해서 1개 중대씩 교대로 진주시 부근의 산지 일대에 거점경계 초소를 만들어 정보수집에 힘쓰고 있었다. 수색조를 편성하여 농민

19) 『해병전투사(제1집)』 (1962), 17~18쪽.

20) 해병대사령부, 해병교육참고 제2호 『해병전투사(제1부)』 (서울: 해병대사령부, 단기 4286년 3월), 11쪽.

21) 『해병전투사(제1집)』 (1962), 16쪽.

혹은 노동자로 가장하고 근처의 부락에 1~2명을 잠복시켜 공비들의 세 포조직과 그 동향을 탐지하게 하고 공비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이 해병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한 훈련과 경비로 공비의 습격에 대비한 방어준비를 하였고 진주시의 치안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진주에 주둔하고 있는 기간 중이던 1949년 10월 11일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인 육군의 김백일 대령으로부터 “경찰이 수집한 첩보에 의하면 백운산의 공비 약 300여 명이 진주를 습격할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해병대는 경찰과 협력하여 방어를 철저히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10월 27일에 진주를 기습하여 진주군청, 재판소, 형무소 등에 방화를 하고 시가전에 돌입한 공비들을 격퇴하였으며, 12월 13일에는 하동군 목계리 및 옥종면 부근에서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출동하여 공비를 격퇴하기도 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해병대는 만 4개월동안 경남 진주에 주둔하면서 민심수습, 선무공작, 훈련, 공비소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1949년 12월 26일에 진주를 출발하여 12월 28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독립 제1대대와 교대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3)</sup>

22) 위의 책, 24~25쪽.

23) 『해병발전사(해병20년사)』 (1961) 11쪽, 『해병전투사(제1집)』 (1962) 25쪽, 『해병전투사(제1부)』 (단기 4286) 16쪽에는 육군 제14연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그러나 『해병사』 제7집(1975) 30쪽에는 육군 독립 제1대대와 교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주도에 육군 독립 제1대대만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 부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해병대는 제주도로 이동한 것이다.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이전 육군의 제주도 부대배치 현황은 본문에 별도 기술하였다.

### 3.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이전 육군의 제주도 부대배치 현황

제주도가 1946년 8월 12일에 道로 승격됨에 따라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에 서귀포에 그 창설본부를 설치하고 창설요원으로 장창국 부위를 비롯하여 안영길 참위(경비사관 제1기)와 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인 김득용, 김복태, 윤충근 참위 등이 임관과 동시에 발령을 받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창설준비에 임하였다. 기간사병으로는 당시 광주에 있는 제4연대 병력 중 가장 사고뭉치인 부랑병사 50명을 인수받아 이를 기간으로 하고 신병을 제주도 내에서 모병하여 A, B중대를 편성하였다. 이리하여 1947년 3월 20일 초대 연대장 장창국 소령이 총사령부 작전참모로 진출될 무렵에는 대대편성을 완료하였다. 제2대 연대장으로는 같은 해 6월 1일 이치업 소령이 부임하였다. 이치업 소령이 부임하여 제2대대까지 편성을 하였으나 모병활동이 여의치 않아 실병력은 1개 대대병력에 불과하였다.<sup>24)</sup>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1947년 7월 15일자로 국방경비대 제9연대를 제11연대에서 분리시키면서 제9연대장에는 제11연대 부연대장이던 송요찬 소령을, 제9연대 부연대장에는 제11연대 제1대대장인 서종철 대위를 임명하였다.<sup>25)</sup> 그리고 제9연대 제1대대를 제11연대에서 배속해 제하고, 7월 21일 제3여단 소속 2개 대대를 차출하여 제주도로 이동시켜 제9연대에 배속시켰다.<sup>26)</sup> 이로써 5월 15일 제11연대에 통합편성되었던 제9연대가 제11연대에서 독립하여 3개 대대로 재편성된 것이다.

24)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109쪽.

25) 위의 책.

2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9, July 23, 1948.



<그림-2> 제9보병연대 창설지 표지석<sup>27)</sup>

제9연대에 보충된 새로운 병력은 제3여단 소속인 부산의 제5연대에서 1개 대대(대대장 소령 김창봉)와 대구의 제6연대에서 1개 대대(대대장 소령 이철원)였다. 7월 24일, 제11연대는 3여단의 2개 대대를 싣고 온 선편으로 제주도에서 연대 창설지였던 경기도 수원으로 철수했다.<sup>28)</sup>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1948년 제주 4·3사건 이후 악화되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다.

27)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 내에 “제9보병연대 창설지”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 표지석에는 “연대는 1946. 11. 16 조국 수호를 위해 광주의 제4보병연대 兵 54명과 경비사관 기간요원으로 제주도 모슬포 대촌에서 창설되었다. ~(이하 생략)”라고 기록되어 있다.

28) 『육군발전사』 상권, 246쪽.



그동안 부산의 제3여단 예하 부대였던 제주도 제9연대가 6월 1일부로 광주의 제5여단 소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령관에는 광주 주둔 제5여단장 김상겸(金相謙) 대령을 임명하였고, 부사령관에는 현지부대장인 제9연대장 송요찬(宋堯讚) 소령을 임명하였다.<sup>29)</sup> 이로써 제주도 경비사령부는 제9연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6연대 1개 대대, 제14연대 1개 대대, 해군소령 최용남부대, 제주경찰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육군본부는 제5연대와 제6연대의 1개 대대는 이미 제9연대 제2대대 및 제3대대로 편성되었으므로 제14연대 1개 대대(제1대대)를 10월 19일 밤에 제주도로 출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여수에 있던 제14연대가 제1대대의 승선 직전인 10월 19일 밤에 반란을 일으켰다. 제5여단 장으로써 제주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김상겸 대령은 제5여단 예하 부대인 여수의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문책을 받아 21일에 파면(김백일 대령으로 교체됨)되었다.<sup>30)</sup> 이에 따라 부사령관 겸 제9연대장인 송요찬 소령이 김상겸 대령의 후임으로 제주도경비사령관직까지 맡게되어 제9연대는 물론 제주경찰과 해군 함정까지 휘하에 두는 진압군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에 주둔하였던 부대가 제9연대(연대장 송요찬 소령)에서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중령)로 교체되었다. 연대 교체 계획에 따라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연대 선발대가 12월 16일 제주도에 도착하였고, 제9연대 선발대가 12월 19일 대전에 도착하였으며, 12월 29일로 업무가 인수인계되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함병선 중령은 본부를 제주읍에 위치한 제주농업학교에 설치하고 제1대대는 서귀포에, 제2대대는 기동부대로서 성산포 방면에, 제3대대는 제주읍 외곽지역인 오등리에 배치하였다.<sup>31)</sup> 제2연대 본부는 1949년 1월 7일에 비행장의 舊 제9연대 병사에서 읍내의 농업학교로 이동하였다.<sup>32)</sup> 제9연대

29) 한용원, 『創軍』 (서울: 박영사, 1984), 97쪽.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61쪽.

31) 濟州道, 『濟州道誌』 제2권(1993), 105쪽.

가 제2연대에게 인계할 당시에는 게릴라 주력이 거의 소멸되고 잔여 게릴라의 소탕도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12월 31일에 제주도지구의 제엄령이 해제되었다.

여순 10·19사건이 진압되면서 주력이 지리산 방면으로 도주하자 정부는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사령관 원용덕 대령)를 설치하고 10월 30일~11월 30일까지 한달여 동안 진압작전을 전개한 바 있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49년 초에 잔여 게릴라들이 활동지역을 넓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남·전북·경남지역에서 준동하므로 육군본부는 1949년 3월 2일로 지리산지구, 전남지구, 제주도지구 등 3개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주도에선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창설되고, 사령관에 유재홍 대령, 참모장에 함병선 대령이 임명되었다.<sup>33)</sup> 따라서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참모장을 겸하게 되었다.

제주도지구 전투부대는 이미 제주도에 배치된 제2연대의 3개 대대와 제6여단 유격대대 등 4개 대대로서 변동이 없었으며, 지휘관만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에서 유재홍 대령(육군사관학교 부교장)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sup>34)</sup> 신임 사령관인 유재홍 대령은 그때까지 해안마을에 주둔 하였던 부대들을 한라산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따라서 연대본부만 제주읍에 남고, 제1대대는 지금의 제1횡단도로 수악교 부근, 제2대대는 관음사, 제3대대는 중산간 교래지경, 특수부대는 지금의 제2횡단도로 1,100고지 서쪽지대에 각각 주둔시켰다.<sup>35)</sup>

5·10재선거가 무사히 실시되자 유재홍 대령은 5월 13일 제주를 떠났고,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는 5월 15일자로 그 임무를 제2연대에게

32) 『한국전쟁사 제1권-해방과 건군』 (1967), 445쪽.

33) 『육군발전사』 상권(1970), 248쪽;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共匪沿革』 (서울: 육군본부, 1971), 255쪽.

34) 제6여단 유격대대는 육본 작명 갑 제22호(1949. 1. 27.)에 따라 1949년 1월 31일 원주에서 제주도로 이동해 있었다.

35) 『濟州道誌』 제2권(1993), 109쪽.

맡기고 해체되었다. 또한 제2연대 제3대대는 5월 15일에 제주에서 철수하였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경찰특별부대가 3개월간의 작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다.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해체 이후 제주도는 다시 제2연대 함병선 연대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전투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제2연대 제3대대가 제주를 떠난데 이어 5월 25일에는 제6여단 유격대대가 배속 해제돼 철수함으로써 제2연대는 가용병력이 4개 대대에서 2개 대대로 줄었다. 제2연대는 국방부 일반명령 제18호(1949. 6. 14.)에 의하여 6월 20일 육군본부 직할로부터 해편되어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제2대대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제2연대(1개 대대 규모)는 8월 13일에 임무를 독립 제1대대(대대장 김용주 소령)에게 인계하고 제주를 출발하여 인천으로 이동하였다.<sup>36)</sup> 함병선 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의 제주도 주둔기간은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에 온 이래 7개월 남짓한 기간이었다.

김용주 소령이 지휘하는 ‘독립 제1대대’는 1949년 7월 15일에 제주도로 이동하여 8월 13일부로 제2연대의 임무를 인수하였다. 독립 제1대대는 육군수색학교(陸軍水色學校)의 후신이었다. 육군 수색학교(교장 김용주 소령)는 학교장이 이끄는 예하 유격대대가 1949년 1월 31일까지 경남 산청으로 이동하여 제5여단장의 지휘를 받아 지리산지구 작전에 참여한 바 있고, 2월 27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정일권 준장) 편성 때에도 이 유격대대가 포함되는 등 주로 지리산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온 전투부대였다. 육군 수색학교는 다시 옹진으로 이동하여 옹진전투에 투입되었으며 6월 20일부로 ‘독립 보병 제1대대’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독립 제1대대는 까치산 전투에서 북한군과의 격전으로 절반정도의 병력손실을 입고 전선에서 철수하였으며, 수원을 경유하여 7월 15일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36) 『육군발전사』 상권(1970), 248쪽.

<표-5> 제주도 투입될 때까지의 육군 독립 제1대대 연혁<sup>37)</sup>

| 시 기              | 내 용  |
|------------------|--|
| 1948년<br>11월 25일 | 육군총사령부 직할로 경기도 고양군 수색 제1여단사령부 내에 陸軍水色學校를 창설                                  |
| 1948년<br>12월 6일  | 북한군의 남파 정치공작대를 소탕하기 위하여 독립 제1대대를 편성해서 훈련에 착수 (대대장 김용주 소령)                    |
| 1948년<br>12월     | 서울유격대로 명명하고, 지리산지구반란군 토벌차 출동하여(진주 주둔), 1949년 5월 9일에 토벌작전을 일단락지우고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 |
| 1949년<br>6월 4일   | 웅진지구로 출동. 1949년 6월 6일 : 육군수색학교 통용명칭을 38부대로 호칭                                |
| 1949년<br>6월 20일  | 육군수색학교를 독립 제1대대로 개칭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한 후, 1949년 7월 5일에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               |
| 1949년<br>7월 15일  | 38부대를 수도경비사령부에서 해편하여 제5사단에 편입. 주둔지 수원에서 제주도로 이동                              |
| 1949년<br>12월     | 제주도에서 토벌임무를 종료후 경상남도 진주로 이동  |

8월 13일부로 제2연대로부터 임무를 인수한 독립 제1대대는 일단 모슬포에 주둔하였다가 대대본부와 1개 중대는 제주읍에, 2개 중대는 모슬포에 분산 주둔하면서 주로 교육훈련과 부대정비를 하였다. 이후 독립 제1대대는 1949년 12월 27일까지 약 5개월간의 주둔을 마치고 해병대에 임무를 인계한 후 제주도에 철수했다.

#### 4. 해병대의 제주도 주둔

해병대가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9년 12월 28일 5개 중대병력이 제주도로 이동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제주도는 치안상황이 상당히 회복되어 육군 1개 대대 병력만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육군 현

37)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 (1967) 참조.

지부대는 병력교대, 물자수송, 환자이동 등을 전적으로 해군함정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해군에 일일이 협조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었다. 그래서 육군측은 해군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병대가 제주도 지역의 경비임무를 맡아 주도록 요청하였다.<sup>38)</sup>

따라서 해병대는 경남 진해에 위치하였던 해병대사령부를 비롯하여 만 4개월 동안 경남 진주에 주둔하면서 민심수습, 선무공작, 훈련, 공비소탕에 많은 성과를 거둔 김성은부대가 모두 진해에 집결하였다. 해군 공창부두(海軍工廠埠頭)에서 신현준 사령관 이하 전원이 해군 LST 단양호에 승선하여 1949년 12월 27일에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였다. 1949년 12월 28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sup>39)</sup>

제주 4·3사건 이후 1,700명 규모의 경찰들과 더불어 국방경비대 제9연대 소속 1개 대대가 투입되었고, 이어 제11연대 본부 및 1개 대대가 파견되었다. 8개월 동안의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게릴라들의 준동이 계속되자 육군<sup>40)</sup>은 1949년 3월 2일 제2연대(1948년 말 제9연대와의 임무교대로 제주도에 주둔)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좀 더 강화된 군·경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육군 독립 제1대대가 제2연대의 뒤를 이어 제주 경비임무를 맡았으며, 4개월 만에 육군 독립 제1대대가 맡고 있던 임무를 해병대가 인수한 것이다.

1940년대 후반기는 道制 실시 직후여서 행정경험의 부족과 공무원의 수적 열세, 그리고 공복의식의 결여로 행정기강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좌우익의 대립에 의한 사회적 무질서와 불안이 팽배했던 시기였다.

38) 신현준, 『노해병의 회고록』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9), 111쪽.; 김성은, 앞의 책, 149쪽.

39)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 (1967), 654쪽.

40) 국방경비대가 육군으로 개편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개월 전인 7월 17일 반포된 헌법과 함께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설치된데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이 반영되어 이 당시의 행정정책은 행정기강확보, 치안 확보, 반공정신 함양, 절량민에 대한 구호대책이 종합적으로 내세워지게 되었다. 특히 1948년에 발발한 제주 4·3사건으로 공비들의 만행과 이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과정에서 중산간 부락 주민이 소가를 당하는 등 이재민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도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민생구호 및 선무공작에도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sup>41)</sup>

이러한 시기에 해병대가 제주도에 주둔하면서 부여된 임무는 해병대 자체의 정신적·육체적 훈련, 4·3사건 이래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입은 30만 도민에 재기의 힘을 주는 한편 그들을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한라산을 근거로 한 공비를 토벌하는 것 등이었다.<sup>42)</sup>

제주도에 도착한 해병대는 1950년 1월 1일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 제주읍부대와 2개 대대의 모슬포부대로 개편하였다.<sup>43)</sup> 그리고 1월 14일에는 해병 제1기 사관후보생 30명이 태릉의 육사에서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간부진이 보강되었으며, 1월 31일에는 37mm 대전차포소대를 신편하였다.<sup>44)</sup> 따라서 제주읍부대에는 본부를 비롯하여 하사관교육대, 3중대, 대전차포소대, 근무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제주도 일대의 경비임무는 모슬포부대가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북제주군 일대를 담당하고, 제2대대는 남제주군 일대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한림, 서귀포 및 성산포에는 정보대와 헌병대를 배치하였다.<sup>45)</sup>

41) 『濟州道誌』 제2권(1993), 362쪽.

42) 해병교육참고 제2호 『해병전투사(제1부)』 (단기 4286년 3월), 17쪽.

43) 『해병사』 제7집(1975), 30쪽.

44) 위의 책,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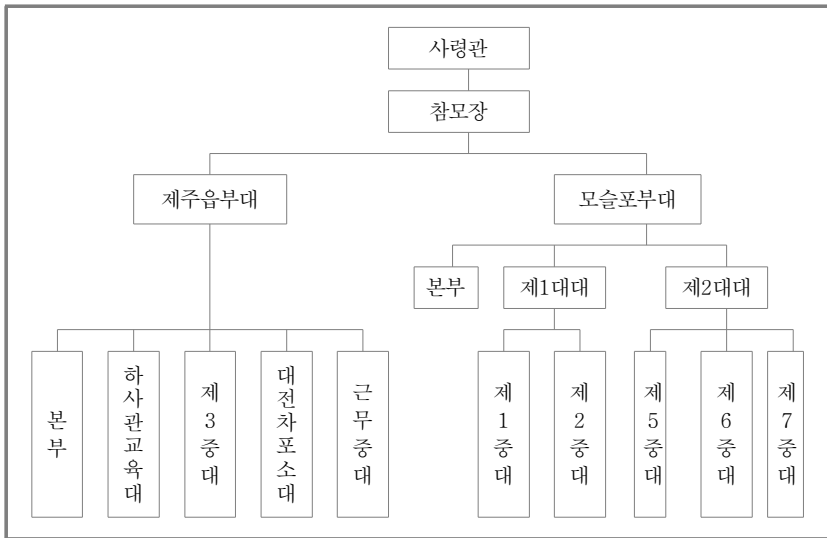
45) 『해병전투사(제1집)』 (1962), 27쪽.



<그림-3> 제주도의 해병대 배치 현황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해병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6> 제주도 주둔 당시 해병대 편성(1950. 1. 1.)<sup>46)</sup>



46) 위의 책, 28쪽.

해병대가 제주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1950년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는 작전 중인 각 부대를 철수시키고, 제주도 내 각 기관을 관장하면서 폭동예방과 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제주읍과 주요지역의 경비초소를 강화하고 해안선 경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7월 8일에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선포됨<sup>47)</sup>에 따라 해병대는 치안을 확보하고 해안 감시 및 해상경비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제주도에 상륙하는 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에 출현하는 적을 발견하는 즉시 포착, 섬멸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신현준 대령)이 지휘하는 제주지역 계엄사령부가 관덕정에 위치한 제주도 임시도청사에 설치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제주도청사는 관덕정 별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49년 1월에 제주도청사에 방화가 발생하여 서류와 비품이 전부 소각되어 행정 이 마비됨에 따라 도청사를 임시로 관덕정으로 옮겼기 때문이다.<sup>48)</sup>

이후 해병대는 1950년 7월 13일 오전 8시 30분에 제주도를 출항한 해병대 고길훈 부대는 15일 오전 8시 군산항에 입항하여 해양대학교사에 본부를 설치하였다.<sup>49)</sup> 그리고 7월 26일에는 제주도에 있던 해병대 참모장 김성은 중령과 제7중대가 여수로 이동하였다. 제주도에서는 8월 30일에 해병 제3·4기생 3,000여 명을 증모하여 3개 보병대대를 편성하고, 9월 1일에 제주도를 출항하였다. 해병대는 함상에서 신병들을 교육훈련시키면서 진해로 이동하여 집결해서 다음 작전에 대비하였다. 9월 6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9월 11일까지 미 해병 제5연대와 함께 단기간의 특수훈련을 마치고 김성은부대의 2개 중대와 함께 9월 12일 미 해군 LST Q3호와 피카웨이호로 부산을 출항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참가

47)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단기 4287), C5쪽. 계엄사령관 육군소장 정일권에 의해 1950년 7월 8일을 기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48) 『濟州道誌』 제2권(1993), 361쪽.

49) 『해병전투사(제1부)』 (단기 4286년 3월), 27쪽; 『해병발전사(해병20년사)』 (1961) 13쪽. 그러나 『해병전투사 제1집(중보판)』 (1962)과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 (2012)에는 7월 15일 제주도를 출항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였다. 이로써 해병대는 제주도를 떠나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 5. 제주도 해병대사령부 주둔 위치에 대한 검토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에 주둔하였던 부대가 제9연대에서 제2연대로 교체되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1949년 1월 7일에 구 일본 해군 비행장의 舊 제9연대 병사에서 제주읍내의 제주농업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제1대대는 서귀포에, 제2대대는 기동부대로서 성산포 방면에, 제3대대는 제주읍 외곽지역인 오등리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8월 13일부로 제2연대로부터 임무를 인수한 독립 제1대대는 일단 모슬포에 주둔하였다가 대대본부와 1개 중대는 제주읍에, 2개 중대는 모슬포에 분산 주둔하면서 주로 교육훈련과 부대정비를 하였다. 즉, 이 독립 제1대대의 본부가 제주농고에 있었다. 이후 독립 제1대대는 1949년 12월 27일까지 약 5개월간의 주둔을 마치고 해병대에 임무를 인계한 후 제주도에서 철수했다.

독립 제1대대가 철수함에 따라 1949년 4월 15일에 진해에서 창설된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참모장 김성은 중령)가 만 4개월 동안 진주에서의 임무를 종료하고 1949년 12월 28일 제주에 도착하였다. 1,200여 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해병대는 사령부와 일부부대(제3중대, 근무중대, 하사관교육대, 대전차포소대)만 제주읍에 두고, 제1대대와 제2대대 등 주력부대는 모슬포에 주둔시켰다.<sup>50)</sup>

당시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이었던 김성은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육군 대대본부를 찾아 그곳에서 대대장 김용주 중령으로부터 적정을 듣

50)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 (1967), 654쪽.

고 인계인수작업을 마쳤다. ~ 중략 ~ 해병대사령부는 육군이 사용했던 2층 목조건물을 사용했는데 당시 제주도의 유일한 2층 건물이었다”<sup>51)</sup>고 회고하고 있다.

그의 회고록에는 각급 부대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령부(사령관은 신현준 대령) 직할부대로는 제3중대(중대장 김낙천 대위), 하사관 교육대(교육대장 김용국 대위), 대전차포 소대(소대장 김동윤 소위), 근무중대(중대장 고상하 중위)를 두었다. 제3중대는 소총중대로서 제주읍 사령부를 경비하고 방어강화를 위한 전투부대였다.

또 932부대(전투정보대, 중대장 김종식)가 있었고, 대전차포 소대(소대장 김동윤 소위)에는 6문의 37밀리 대전차포가 있었는데, 이는 장총통이 진해를 방문했을 때 예포발사를 했던 유서깊은 무기였다. 비록 전투에는 큰 쓸모가 없었지만 버리기가 아까워 그냥 가져 온 것이었다.

제주도 서남쪽 모슬포에는 꽤 큰 활주로가 있는 일본군 폭격기 부대 비행장이 있었다. 이 비행장은 일본군이 상해와 양자강 일대를 폭격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곳 모슬포에는 모슬포 부대(부대장 김동하 소령)를 주둔시켰다.

이곳에는 1, 2대대로 편성, 주둔했다. 1대대(대대장 김병호 대위, 해사 1기)는 1중대(중대장 한예택 대위), 2중대(중대장 김광식 중위, 해사 1기)로 편성하고, 2대대(대대장 고길훈 소령)는 5중대(중대장 김재주 대위), 6중대(중대장 황영 중위), 7중대(중대장 안창권 대위)로 편성했다.

모슬포 부대가 위치한 곳은 대정읍 상모리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삼방산 앞의 하모리라는 곳이었다. 일제 때 일본 공군이 건립한 7, 8개의 건물을 병사(兵舍)로 사용했는데, 말이 건물이지 돌과 시멘트로 축

51) 김성은, 앞의 책, 151쪽.

조한 폐사 같은 낮은 단층 건물이었다.”<sup>52)</sup>

이처럼 육군 제2연대가 제주농고에 본부를 설치한 이후 육군 독립 제1대대도 제주농고에서 육군 제2연대로부터 인계인수를 받고 주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49년 12월 28일에 독립 제1대대는 해병대에게 제주도에 대한 임무를 인계하고 제주도를 떠난 것이다.

당시의 제주농고는 현 제주고등학교의 전신이다. 제주고등학교의 연혁에 의하면 제주농고는 1907년 7월 1일 ‘사립제주의신학교’로 설립되어 개교하였으며, 1911년 11월 1일에 ‘제주공립농업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1940년 5월 26일에는 오현단 부지에서 ‘삼도리 283번지’로 이전하였다. 이후 1951년 8월 31일에는 교육법 개정에 따라 3년제 ‘제주농업고등학교’로 학제가 변경되었으며, 1976년 3월 1일에 광양 부지에서 현 ‘제주시 1100로 3213번지’로 이설되었다. 그리고 2000년 3월 1일에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다시 2008년 3월 1일에 ‘제주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sup>53)</sup> 즉, 제주농고는 제주고등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6·25전쟁 당시 제주농고는 현 제주고등학교의 위치인 ‘제주시 1100로 3213번지’가 아니라 ‘삼도리 283번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위치에 육군 제2연대 본부에 이어 육군 독립 제1대대 지휘부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육군 독립 제1대대가 해병대사령부에 인계하고 제주도를 떠난 것이다.

당시 제주농고가 위치해 있던 삼도리 283번지에는 현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 옛 제주농고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sup>54)</sup> 이곳이 해병대가 제주도에 도착한 1949년 12월 28일부터 6·25전쟁 발발로 제주도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1950년 7월 8일

52) 위의 책, 151~152쪽.

53) 제주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jeju.jje.hs.kr> 참조(검색일: 2018. 3. 13.)

54) 도로명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번지(삼도일동)’이다.

까지의 해병대사령부 위치인 것이다.



<그림-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내에 옛 제주농고 터임을 알리는 표지석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에 주둔하던 해병대는 진행 중이던 무장대 진압작전을 중지하고, 해안선 경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7월 8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해병대는 치안을 확보하고 해안감시 및 해상경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제주도에 상륙하는 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에 출현하는 적을 발견 즉시로 포착 섬멸하는 임무를 맡았다.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제주도청에 제주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당시 제주도청은 관덕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1949년 1월에 도청사로 사용 중이던 관덕정 별관에 방화가 발생하여 서류와 비품이 전소되어 행정이 마비됨에 따라 도청을 임시로 관덕정(觀德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sup>55)</sup> 1949년 11월 15일에 제5대 제주도지사로 부임한 김중희 씨는 결국 현 제주시청 자리로 결정하고 ‘도청건립 11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사업이 유보되었다.

55) 『濟州道誌』 제2권(1993), 361쪽.

1950년 7월 8일 제주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제주도청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제주도지구계엄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하였다.<sup>56)</sup> 즉, 현재 제주시 관덕정에 임시로 설치된 제주도청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은 前 국방부장관의 회고록에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관덕정(관디창이라 발음)이라는 정자의 마당 뒤에 있는 단층 목조 건물이 도청, 그 옆에 단층으로 길쭉한 형태의 건물이 경찰국이었다”<sup>57)</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관덕정에 도청이 있었으며, 도청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로서의 해병대사령부가 제주도청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현 표지석 위치와 제주도 주둔 초기 해병대사령부 위치

56)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 (2012), 67쪽.

57) 김성은, 앞의 책, 155쪽.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덕로 조일약국 앞에는 1949년 12월 28일부터 1950년 9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했다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2010년 9월 1일 “제10회 제주해병대의 날”에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이 표지석의 위치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해병대가 제주도에 도착한 1949년 12월 28일부터 주둔했던 곳은 조일약국 앞이 아니라 옛 제주농고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해병대가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인 1950년 9월 1일까지는 관덕정 임시도청사에 해병대사령부가 제주도지구 계엄사령부로서 주둔하였기 때문이다.

## 6. 결 론

대한민국 건군 이후에 많은 부대들이 창설되어 증편되고, 편제의 조정으로 인해 없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부대들이 창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전쟁 이후 산업발전에 따른 지리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건군 초기에 창설되었던 부대들의 위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곳이 부대 창설 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주둔했던 곳의 위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병대가 창설되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병대 처음 세운 곳”이라는 탑이 세워져 있을 뿐, 창설 당시의 지리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에서도 다르지 않다. 창설 이후 두 번째로 주둔했던 곳인 제주도에도 관덕로 일대 조일약국 앞에 해병대사령부가 주둔했던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표지석의 설치하는 역사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지석의 위치와

명문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고증이 필요할 것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했던 덕산비행장에서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된 해병대는 8월부터 4개월 동안 경남 진주에서의 작전수행을 마치고 12월 28일에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당시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이었던 김성은 前 국방부장관은 해병대가 제주도에 도착하여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독립 제1대대의 대대본부를 찾아가 그곳에서 대대장 김용주 중령으로부터 적정을 듣고 인계인수작업을 마쳤으며, 해병대사령부는 육군이 사용하였던 2층 목조건물을 사용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령부와 제주읍부대를 제주읍에, 모슬포 지역에는 모슬포부대를 주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병대가 제주도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육군 제2연대에게 임무를 인계받은 육군 독립 제1대대만 있었다. 따라서 해병대는 1949년 12월 28일에 육군 독립 제1대대로부터 임무를 인계받았던 것이다. 이 당시 육군 독립 제1대대는 제2연대 본부가 위치해 있던 제주농고에 지휘부가 있었으며 해병대는 이곳에서 인계인수를 마치고 주둔하였던 것이다.

즉, 당시 제주농고에 위치하고 있었던 삼도리 283번지(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위치)에 해병대사령부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제주농고는 1976년 3월 1일에 제주시 1100로 3213번지로 학교의 위치를 옮겼으며, 2000년 3월 1일에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다시 2008년 3월 1일에는 제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제주농고는 제주고등학교의 전신으로 현재의 제주고등학교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였으며, 그 위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주국제정보교육원에 옛 제주농고의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증언자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는 증언자가 그 현장에 있었거나, 증언자가 직접 관계가 되거나, 증언자가 직접 본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있어 김성은 前 국방부장관의 회고록에 기록된 내용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의 회고록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의 조일약국 앞에는 제주도에 해병대 사령부가 주둔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2010년 9월 1일 제10회 제주 해병대의 날에 설치된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은 1949년 12월 28일부터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하였던 옛 제주농고의 위치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의 해병대사령부는 관덕정에 위치한 임시 도청사이므로 현재의 표지석이 설치된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지석의 명문도 1949년 12월 28일부터 1950년 9월 1일까지가 아니라, 1949년 12월 28일 제주도에 도착하여 1950년 7월 7일까지와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해병대사령부가 관덕정 임시도청사로 옮겨간 1950년 7월 8일부터 제주도를 떠난 1950년 9월 1일까지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4. 5, 심사수정일 : 2018. 5. 9, 게재확정일 : 2018. 5. 14)

주제어 : 제주도,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김성은, 관덕정, 조일약국, 제주농고.



## <참 고 문 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제1권: 解放과 建軍』,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미정규전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전 국방부장관 김성은 회고록)』, 서울: (주)아이템플코리아, 2008.
-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대정고 50년사』 (상), 제주: 대정고등학교 총동창회, 2004.
-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단기 4287.
- 신현준, 『노해병의 회고록』,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9.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서울: 육군본부, 1970.
-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共匪沿革』, 서울: 육군본부, 1971.
- 濟州道, 『濟州道誌』 제2권, 1993.
- 한용원, 『創軍』, 서울: 박영사, 1984.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 충남 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 해군본부, 『해병사』 제7집, 서울: 해군본부, 1975.
- 해병대 공식 블로그, <http://rokmarineboy.tistory.com/201>, <검색일: 2018. 3. 13.>
- 해병대사령부, 해병교육참고 제2호 『해병전투사(제1부)』, 서울: 해병대사령부, 단기 4286년 3월.
-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해병대 20년사)』, 서울: 해병대사령부, 1961년.
-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서울: 해병대사령부, 1962.
- 해병대사령부, 『해병대편제사( I 권)』,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2011.
-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해병대 전투사』,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2012.
- 제주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http://jeju.jje.hs.kr> (검색일: 2018. 3. 13.)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9, July 23. 1948.

<Abstract>

##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Marine Corps Headquarters in Jeju Island

Park, Jong-sa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ne Corps of Republic of Korea, the locations of the HQ has been changed a lot and many units have created and expanded over the time, and they have been lost due to the adjustment of the organization. And new units were created, and existing units moved to new places.

It is not easy to find the positions of the troops that were formed in the early days of the army due to such a large number of changes. It is because many places do not appear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unit.

It is located on Jeju Island, which is the second station after the foundation, in front of Joil Pharmacy at Gwangdeok-ro. It is equipped with a marker that the Marine Corps HQ. is stationed on. However, the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marker should be more thoroughly researched historically.

Former Defense Minister Kim Seong-eun, who was Marine Corps Commander's Chief of Staff at the time, arrived at Jeju Island when the Marine Corps arrived at Jeju Island, where he visited the Battalion headquarters of the Army's 1st Independence Battalion, and received orders from Colonel Kim Yong-Ju And that he used the two-story wooden building used by the army. Because Jeju Island was the 1st Army Independent Battalion that was assigned to the 2nd Army Army. Thus, the Marines were taken over from the 1st Army Independent Battalion on December 28, 1949.

At that time, the 1st Army Independent Battalion had a commanding post in the Jeju agricultural high school, where the 2nd Army Rgt. hq. was located, and the Marine Corps was stationed after the takeover of this area. There was a Marine Corps HQ. at 283 Samdo-ri (currently located at Jeju Inter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which was located in the Jeju agricultural High School at that time.

Therefore, it should be installed at Jeju Inter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which is the location of the old Jeju agricultural high school where the Marine Corps HQ. was located since December 28, 1949.

After the emergency martial law was declared on July 8, 1950, the Marine Corps HQ. was located in Gwandeokjeong. Also, the contents of marker should be corrected.

Key Words : Jeju, Marine Corps, Marine Corps HQ., Kim Seong-Eun,  
Gwandeokjeong,

